80
MOSTRA INTERNAZIONALE
D'ARTE CINEMATOGRAFICA
LA BIENNALE DI VENEZIA 2023
Venice Immersive
아메리칸 타운
김진아 감독 작품

당신의 침묵을 비추는 거울

LOGLINE

가상현실 영화 <아메리칸 타운>은 주식회사 아메리칸 타운에 의해 운영되고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기지촌, 아메리칸 타운의 과거로 관객을 초대한다.

WELCOME TO
INTERNATIONAL CULTURE VILLE
대오피스
TRANSLATION
Souvenir Antique
Tel : 466-4140
아메리칸타운
American Town
환영합니다

PROJECT INFORMATION

CAST & CREDIT

김진아 감독 작품. **제작** 싸이언 필름 **각본/연출** 김진아 **출연** 김보령 **제작** 김진아 **총괄 프로듀서** 조수아 **협력 프로듀서** 손모아 **촬영감독** 김지현 **프로듀서** 조은석, 임승현, 김한재 **조연출** 김현승 **스크립터** 손모아 **편집** 김진아, 손모아 **미술** 김종진 **미술팀** 송훈종, 이미정 **분장** 이도을, 박현민 **의상** 이영아 **연출팀** 이대원, **조영인** 제작팀 서한솔 **VR 촬영 감독** 이진형 **VR 촬영팀** 이상화, 천우석, 전형덕 **조명감독** 임수열 **조명부** 김철환 **동시녹음** 김솔 **VFX 수퍼바이저** 가재찬 **CGI 수퍼바이저** 이동환 **사운드 디자인** 마코 담브로시오 **리드 컴포지터** 김기현 **홍보** 김수현, 김다예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수

GENRE

실험 다큐멘터리

TECH SPECS

3D 360 가상현실 영화, 16분, 컬러, 2023

SPONSORS

한국콘텐츠진흥원, 전주국제영화제, UCLA FRG 그랜트, UCLA여성학 센터

SYNOPSIS

1969년, 군산 미공군기지 근처에는 소형도시의 모습을 갖춘 기지촌이 설립되었다. 전국에서 모집된 여성들은 미군 위안부라고 불렸고 주식회사 “아메리칸 타운”이 설립되어 이들을 관리했다. 가상현실 영화 <아메리칸 타운>은 정부의 지지와 인가를 받고 운영되고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기지촌 “아메리칸 타운”의 과거로 관객을 초대한다. 2022년의 한 낮, 쇠락하고 빈 아메리카 타운은 텅 비어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사위가 어두워지자 타운에는 번성했던 과거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음악 소리가 마을을 뒤덮고 술 취한 미군들의 목소리와 여성들의 노랫소리가 섞인다. 관객은 홀리듯이 낯선 기지촌으로 들어가 아메리칸 타운의 일상을 경험한다.

ABOUT “AMERICAN TOWN”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 주둔해 온 미군기지는 한때 약 1억만 평에 이르기도 했다. 기지 주변에는 누적 수십만명으로 추정되는 미군위안부가 일하는 약 96개의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60년대 후반, 미군 위안부들은 외화벌이의 영웅으로 내몰리며 남한의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여성 인권과 성폭력의 이슈들이 적극적으로 공론화 되는 21세기의 현실에서도 이 미군 위안부들의 이야기는 침묵 속에 묻혀 있다. (주1)

<아메리칸 타운>은 김진아 감독의 미군 위안부 VR 3부작의 최종 작품이다. 미군 위안부 3부작의 첫번째 작품<동두천>은 1992년 동두천 기지촌에서 일어난 살해 사건에 기반한 작품이다. 2부 <소요산>은 성병 관리를 위해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감금하고 강제 치료했던 낙검자 수용소의 하루를 이야기 한다. 미군 위안부 VR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아메리칸 타운>은 군산의 미군공군기지 인근에 설립되었던 기지촌, 아메리칸 타운을 주 무대로 한다. 아메리칸 타운은 1969년 미군의 향락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 아래 체계적으로 설립된 계획 도시형 기지촌의 이름이다. (주2)

아메리칸 타운의 설립을 주도한 것은 5·16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고 중앙정보부 요직에 오른 전직 대령이었다. “외화획득” “국위선양”이라는 기치 아래 군산 인군, 옥구군의 만 여 평의 땅을 매수하고 클럽 등의 유흥시설은 물론 자체적 환전소에 이르기까지 소형 도시의 모습을 갖춘 계획형 기지촌을 설립했다. 미군 위안부들이 모집되고 그 여성들을 위한 500여개의 주거시설까지 완성하고 나자 1969년 9월, 주식회사 아메리칸 타운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일반인의 출입은 금지되었다. 아메리칸 타운 주식회사는 정부의 지지와 인가를 받은, 미군만을 위해 세워진 공식적인 집창촌이었다.

한때 하룻밤 천 여 명의 미군이 방문하기도 했을 정도로 성황을 누렸던 아메리칸 타운은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미군 범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며 점차 쇠락해 갔다. 2014년, 주한미군은 병사들의 아메리칸 타운의 방문을 금지되기도 했다. 2022년 현재, 주로 러시아 여성들이 성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 아메리칸 타운에는 그러나 한국 여성들이 미군을 상대로 일했던 기지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타운의 입구에 “아메리칸 타운”이라고 영어로 적혀있던 대형 아치는 “International Culture Ville(국제문화마을)”이라고 옹색하게 바뀌었지만, 타운의 벽과 현수막들에 아메리칸 타운이라는 이름은 여전이 남아있다. 몰입형 가상현실 영화 <아메리칸 타운>은 재개발의 광풍으로 이 기지촌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몰입형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진 시간과 공간의 아르카이브를 만든다.

주 1: 한국정부는1951년 보건부 예규에서 ‘위안부’를 ‘위안소에서 외군을 상대로 위안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자’로 정의했으며 ‘미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한국 정부가 기지촌 여성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1980년대까지 법령, 공문에서 일관되게 사용된 표현이다. 2022년 서울 대법원은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배상을 촉구했으며, 판결문에서 ‘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주2: 설립된 주식회사의 공식 명칭은 “아메리칸 타운”이며 이에 따라 타운의 공식 명칭 역시 “아메리칸 타운”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방문자들에 의해 통상 “에이 타운 (A-town)” 또는 “아메리카 타운”이라 불리기도 한다.

WELCOME TO AMERICA TOWN OSCAR
아메리칸타운
American Town

DIRECTOR'S STATEMENT

촬영을 준비하던 중, 아메리칸 타운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타운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졌고 매춘을 위해 세워졌던 여성들의 기숙사는 가장 먼저 철거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가을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날, 한국 대법원은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발표했다.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촉구했으며, 판결문에서 '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가슴 벅차게 기쁘면서도 그녀들의 싸움은 이제야 시작이라는 생각에 먹먹해졌다. 타운은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몰입매체 기술은 타운의 모습을 영구히 보존하고 복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 VR영화 <아메리칸 타운>에 보존된 모습과 디지털 파일들이 다음 세대에도 전해져 미군 위안부 여성들이 감내했던 시간이 기억되고 경험될 수 있기 바란다.

DIRECTOR'S BIO

김진아 감독의 다섯 편의 장편 영화들은 칸느, 베니스, 베를린을 비롯한 많은 국제 영화제와 뉴욕의 현대미술관, 파리 퐁피두 센터 등에서 상영되면서 해외 언론과 평론가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의 영화 잡지 까이에 뒤 시네마는 <그 집 앞 2004>을 두고 "한국 영화계의 급진적 발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풍경" 이라는 말로 김진아 감독의 등장에 환호했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강렬하고 감동적인 경험" 이라고 <두번째 사랑 2007>을 극찬했다.

김진아 감독의 초기작들은 여성의 몸과 욕망, 디아스포라를 다룬다. 마이클 니먼의 영화음악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두번째 사랑 2007>은 최초의 한미 합작 영화로 하정우, 베라 파미가 주연으로 인종과 계급을 넘어서는 전복적 서사의 멜로 드라마이다. 선댄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고, 프랑스 도빌 아메리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으며 국내에서는 대종상 신인 감독상, 춘사영화상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양자경, 헨리 주연의 한중 합작 영화 <파이널 레시피>는 상하이를 배경으로 태국, 중국, 한국에서 촬영되었다. 중국에서 3천 2백여개의 극장에서 개봉되고 베를린 국제영화제, 산 세바스찬 국제영화제 컬리너리 시네마 Culinary Cinema 부문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 이후 김진아 감독의 작품들은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초국가적 폭력에 촛점을 맞춘다. 미군위안부 VR 3부작의 첫번째 작품인 <동두천>은 베니스 영화제 베스트 VR 스토리 상을 비롯 유수의 상을 휩쓸었고 필름메이커 메거진에 의해 2017 최고의 VR 영화로 선정되었다. 2021년 베니스 영화제 Vr경쟁부문에서 초연한 <소요산>은 제네바 국제 영화제에서 최우수 VR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정치적 이슈를 감각적 경험의 세계로 풀어낸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Gina Kim' 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펼치는 김진아 감독은 한국 여성 감독 최초로 제 57회 베니스 영화제 경쟁부문의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2004년에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하버드 대학 시각예술학과에서 영화제작과 이론을 가르쳤다. 2014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최우수 교육자상을 수상했고 2018년 버라이어티지에 의해 최고의 영화교육자 10인에 선정되었다. 2014년부터 UCLA 대학 영화과 종신교수로 재직중이며 헐리우드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IMAGES

사진, 트레일러, 포스터

A
에이
Volume
서울슈퍼